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뉴스잡지 158호

Ching Hai

CD_A101c

부처가 되는 법을 배우면 성불한다.

1989. 10. 21.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강연

CD_A106b

계율의 의미

1989. 12. 3.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강연

CD_A106c

진리는 오직 하나다

1989. 12. 10.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강연

CD_A78a

성스러운 출가승과 보통 출가승

1989. 5. 28.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안락 사원 강연

CD_A585

사랑을 가져오자

1997. 5. 11.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

CD_A598a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자

1997. 10. 23. 태국 방콕 국제 선사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754

〈영어+20개 국어 자막〉

영적 깨달음의 단계

2003. 1. 31/ 2. 4.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DVD755

〈영어+21개 국어 자막〉

웃는 성인들

2003. 2. 3.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DVD757

〈영어+23개 국어 자막〉

스승들의 세계에 대한 진리

2003. 1. 29-30/ 2. 5.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출판일자 : 2005. 9. 24.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앞표지/ 안 영운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DVD/ 책
- 2 스승님 말씀**
명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실현시킨다
- 3 다채로운 이벤트**
코스타리카/ 미국/ 대한민국/ 포모사
- 9 스승님께 드린 어머니 날과 생신축하 카드/ 시**
은혜로운 5월 어느 날
- 10 특별 보도**
최고의 선물을 갖고 오신 스승님-2005년 유럽 선 행사기
- 13 사랑의 바다에서 온 물방울**
신의 은총 속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한겨울의 꿈, 축복 받은 낙원/
2005년 유럽 선 행사에서 얻은 귀중한 축복
- 17/19 사제지간의 편지**
윙크의 힘/ 나의 삶에 새순이 돋다
- 18/22 유용한 정보**
먹을 때는 말을 삼가라/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면 긍정적인 상황이 따른다
- 20 관음 고속도로**
신실한 수행으로 모든 삶이 아름다워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 '통치약'
- 23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겉모습은 믿을 게 못 된다
- 24 스승님의 농담**
살려줘요
- 25 신기한 감응**
스승님의 보호로 사고에서 기적같이 살아남다
- 2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승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진정한 자유
- 30 골라 뽑은 수행문답**
수행과 세속 생활의 조화/ 명상은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
입문자의 업장은 인스턴트 커피처럼 빠르고 강하다/ 정업(定業)과 신업(新業)/
영적인 시험의 본질/ 일찍 '집' 으로 돌아가는 비결
- 33 매체 보도**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가 케냐의 버려진 아기를 구하다/ 대한민국 광주드림/
대한민국 부산일보
- 36 지혜어록**
신의 축복에 감사하고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류를 이끌자/
깨달음과 명상은 재해를 막아주는 열쇠
- 38 과학과 영성**
인간에게서 신(神) 유전자가 발견되다
- 39 사랑의 실천**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 지진 피해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 41 추천서**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 노숙자 갱생 보호소
- 45 전세계 연락처**
- 48 관음 웹사이트**
- 뒤표지/ 안 무상예술**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복제화-음악의 전투
- 뒤표지 스승님의 최근 사진**



명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실현시킨다

청하이 무상사/ 1996. 3. 20.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39

때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앞뒤 일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상황을 바꿀 수 있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투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터무니 없는 말을 한다거나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도 바꾸려는 강한 의지가 있거나,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상황은 즉시 변합니다. 신이나 누군가가 그 일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만이 내일 일어날 일을 말하겠지요. 개인의 일일 때에는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생활 수준이 똑같은 채여야지 만약 그 사람이 좀더 좋아지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의 운명은 변합니다.

이는 운명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운명을 잘 다스려서 더 바람직한 상태나 생활 수준으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업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힘겨운 노력도 해야 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명상의 힘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상도 하지 않고 내면에 전지전능한 창조의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라는 남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 있어.’라는 생각만 하면 돈이 생깁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럼 마냥 생각만 해 보세요!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중 웃음) 그냥 돈이 생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나서 얼마가 생겼는지 내게 말해 보세요! (대중 웃음)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뒷받침 해주 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최고의 신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은 명상을 해서 그 힘을 얻고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자리에 앉아 생각만 하지 말고 반드시 명상도 하십시오. 돈에 대해 생각만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고 그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감당할 만한 돈은 있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소식

요리와 시식 박람회에서 영성을 맛보다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산호세] 2005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해마다 열리는 코스타리카 최대 요리 축제인 ‘요리·시식 박람회’가 산호세의 헤라두라(Herradura) 호텔에서 열렸다. 코스타리카 주요 일간지 『라 나시온(La Nacion)』이 후원한 이 축제에는 전국 요리사 협회와 식품·가정용품의 주요 업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대안적 채식’이라는 제목으로 부스를 차려서 채식 요리 맛보기와 요리 실습을 선보이고 스승님의 『무상주방』 비디오를 상영하였으며, 손님들에게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 주며 채식의 이로움을 알렸다.

코스타리카 센터 동수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림잡아 열흘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한 동수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

동수들이 부스를 차리려고 행사 담당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음식을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음식을 팔지 말라는 새로운 지침이 나왔다. 동수들은 이것이 방문자들이 채식을 무료로 맛보게 하려는 신의 안배임을 느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행복해했다.

박람회 동안 부스를 찾아온 사람들은 동수들에게 호감을 보였고 부스에 전시된 스승님의 사진을 보자마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명록은 채식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많은 의견들로 채워졌다. “맛있어요, 나는 순수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건강에 좋은 채식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런 즐거움은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즐거운 채식주의자가 됩시다.”, “훌륭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식당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비한 맛, 훌륭한 질감, 화려한 색, 음식에 필요한 맛, 향, 모든 것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또한 많은 방문객들이 산호세 센터 요리 실습반에 등록했다. 고기를 내놓은 다른 부스 주인들은 박람회에서 우리 부스에 손님이 가장 많았으며 우리의 전시와 음식 맛에 감탄했다.

놀라운 일은, 이번 행사에 11,000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러 호의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신성한 사랑의



힘이 동수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 힘은 많은 사람들이 산호세 센터를 찾아와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어한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스승님의 도움으로 2005년 ‘요리·시식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관심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물질적, 영적인 자양분을 대중들과 나누면서 행사 내내 신의 은총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에 감사드린다!



미국 텍사스 소식

함께 이루어낸 성공적인 흥법 행사

휴스턴 뉴스그룹

[휴스턴] 휴스턴, 오리진, 로스앤젤레스 센터 동수들은 2005년 5월 7일 휴스턴 공립 도서관에서 영상 강연회를 열어 지역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동수들은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고 방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고 방문객들에게 맛있는 채식요리도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다면 그 것이 채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스승님의 인도와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음법문에 대해 물어 보았고 일부는 나중에 방편법을 배웠다.

강연회는 순수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했고, 스승님의 자비와 보살핌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동수들은 다음과 같은 바람을 나타냈다. “스승님, 당신의 끝없고 한없는 사랑과 영적인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구도자들에게 스승님 지혜의 가르침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식

최고의 웰빙은 몸과 영혼의 웰빙

서울 뉴스그룹

[서울] 2005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컨벤션센터에서 ‘내추럴 앤 웰빙 페어(Natural Products & Well-Being Fair)’가 열렸다. 서울 센터 동수들은 이 행사에 참여해 관음법문의 이로움과 채식

주의 생활에 대해 널리 알렸다. 요즘 한국에서 웰빙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질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번 웰빙 페어 행사를 위해 동수들은 넓은 공간을 마련해 큰 TV와 스승님의 사진, 만세등, 아름다운 꽃으로 부스를 꾸몄다. 분홍 색과 보라 색으로 꾸며진 우리 부스는 행사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에 띄었다.

많은 관람객들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았고, 전단지과 견본책자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도 많았다. 스승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코엑스(COEX)의 한 직원은 동료들에게 나눠 준다면서 여러 번 우리를 찾아와 잡지를 더 많이 가져 가곤 했다.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노신사는 스승님의 비디오를 유심히 보고 나서, “물질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현대 사회에서 도덕심을 일깨우는 스승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 동수들은 웰빙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채식의 이로움도 함께 알리려고 채식고기와 채식 빵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는데, 호기심으로 채식 고기를 맛보다 스승님의 비디오에 사로잡혀서 의자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관람객이 많았다. 한 여성은 스승님의 말씀에 감동한 나머지 매일 찾아와서 하루 종일 한 자리에 꼼짝도 않고 비디오를 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방문객들은 몸과 영혼의 양식을 모두 얻는 큰 즐거움을 누렸다.

웰빙과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2005년 서울 내추럴 앤 웰빙 페어 전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스승님 축복으로 더할 나위 없는 웰빙의 길인 영혼의 웰빙을 선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포모사 소식

책을 전달하며 스승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타이베이] 1999년과 2002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사랑을 보내자, 타이베이를 밝히자’라는 주제로 책 나누기 행사를 펼친 일이 있다. 이 행사에 대해 지방정부와 단체, 교육기관이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동수들은 올해 ‘세계 책의 날’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다시 한 번 이 행사를



누어 준 『삶을 다채롭게』, 『후광이 너무 꼭 껴요』,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와 같은 스승님 책은 네 곳의 교정시설 상담직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소년원생들 대신 동수들의 선물을 받은 타이베이 소년원 천 교도관은 나누어 준 책 가운데 스승님 만화책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를 훑어 보고는 “참 좋은 책이군요! 이 책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틀림 없이 좋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타이베이 구치소 왕 양도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쉬워요. 스승님 책은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이 읽을 만한 여러 가지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라며 동감을 나타냈다. 또한 그녀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책을 진열하겠다고 말했다.

4월 20일, 동수들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 수용소와 사설 수용소 열한 곳에 스승님 책을 나누어 주었다. 티웨이 보육원 원장인 위안 씨는 몇 년 전 보육원이 어려웠을 때 20만 NT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동수들이 보육원을 찾아 갔을 때는 지역의 건설 계획 때문에 보육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의 새 집을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따뜻한 도움에 크게 감동했다. 타이베이 양밍 양로원 원장인 차오 씨는 직원들이 날마다 거주자들을 잘 돌본다고 해도 그들의 외로움과 공허감을 위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승님 책을 좋아했고 스승님의 생애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4월 23일 ‘사랑의 바다 예술센터’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열었다. 스승님 지혜의 가르침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로움을 주려고 2005년에는 고아원과 양로원, 도서관, 교도소로 그 대상을 넓혔다.

4월 19일 동수들은 스린 구치소, 타이베이 구치소, 타이베이 소년원, 타이베이 교도소, 중앙경찰대학에 책을 전달했다. 길을 잃고 철창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에게 책은 바깥세계와 다시 만나 가장 좋은 길이며 특히 영성에 대한 책들은 영혼을 드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

동수들은 23일 타이베이 현에 있는 린아이 양로원에 스승님의 출판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곳에 머무는 90대의 할머니 두 분은 동수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고 동수들과 함께 즐겁게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동수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매우 즐거워했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따뜻한 보살핌에 고마워했다. 그후 동수들이 진산, 스먼, 산즈 도서관을 찾아가 책을 전하자 도서관 직원들은 감사해하며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책을 전시하겠다고 했다.

4월 27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혜의 책을 가지고 시각 장애우를 위한 타이베이 시립 치밍 도서관을 다시 찾아갔다. 지난 번 동수들이 찾아갔을 때 도서관 직원 리 씨는 시각 장애우들이 스승님 시집과 영혼을 드높이는 종교서적들을 너무 좋아한다며 이런 책이 많아야 사람들이 책을 통해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찾아가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제공해 시각 장애우들을 위해 점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타이베이 센터의 책 나누기 행사로 진리의 소식이 사회에서 소외된 곳까지 다다를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중생들이 스승님 지혜의 감로수로 영혼을 살찌우기 시작했다.

* 주: 1996년 유네스코 문화부는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정했으며 포모시는 이 행사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에 포함된다.

내면 · 외면 모두의 환경 보호

지룽 뉴스그룹



[지룽] 2005년 4월 30일, 지룽 시 환경보호국은 포모사 환경 보호부가 제정한 ‘2005 포모사 바다의 해’ 계획 사업의 하나로 바도우즈 차오징 공원에서 해변 청소 행사를 열었다. 이 뜻깊은 행사에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30여 개 다른 단체들이 참가했다.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고양될수록 청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청결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보다 더 깨끗하다거나 누군가가 청결함을 더 좋아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선·미라는 성인의 생활 방식이 표현된 것입니다.”(뉴스잡지 83호 발췌) 동수들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빠르게 해변을 청소했다. 해변은 그다지 더럽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청결의식이 높아서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러 해 동안 해변 청소 행사에 스스로 열심히 참여해 온 황 사저는 “스

승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상하고 채식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변 청소는 바깥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내면과 외면을 모두 깨끗하게 보호해야만 진정으로 스승님 가르침과 이상을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뜻에 다같이 참여해서 오염이 없는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끈기를 가지고 도전을 극복하다

지아이 뉴스그룹



[지아이] 제14회 포모사 전국대학체전이 2005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국립 중정(中正) 대학교에서 열려 포모사 곳곳의 165개 대학에서 참가한 약 12,000명의 선수들이 여러 가지 경기를 벌였다. 때마침 지아이 현 민시웅 읍에서도 해마다 열리는 파인애플 문화 잔치가 열렸다. 이 때문에 이번 행사는 과일 바자회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면(雲門) 무극과 리위안(梨園) 극방 공연 같은 많은 문예 행사를 열어 운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남다른 행사가 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도 이번 행사에 두 개의 부스를 마련해 한 곳에서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채식의 놀이 알렸다. 동수들은 손님들을 위해 여러 가지 맛있는 채식요리를 해서 채식음식이 부족한 멀리 행사장에 가져다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며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물어 보았고 동수들은 즐겁게 답해 주었다. 행사를 하는 동안 10년 넘게 채식의 해 온 한 전시 관계자는 우리를 찾아와 “여러 가지 요리와 스승님의 가르침 모두 감동할 만하지만 음식보다는 스승님 DVD 강연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스승님 가르침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인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찾아왔다. 그 가운데 관음법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부모님 반대로 입문을 못했던 한 외국어과 학생은 방편법을 배우고 나자 축복이 넘치고 고양되어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또한 지역의 한 유명 인사는 스승님 DVD를 보려고 자주 들렀으며 올 때마다 몇 시간씩 있으면서 밥먹을 시간이 되어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 행사 넷째 날, 그는 방편법을 배웠고 채식의 잘 하게 되면 입문하겠다고 말했다.

선수 몇 명도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동

수들도 있었다. 채식을 하면서도 각 대학에서 최고 선수들인 이들은 균형 있는 채식이 육체적인 힘도 길러 준다는 것을 증명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대학교의 수영선수 류 사형은 채식이 몸의 부담을 없애주고 끈기와 체력을 키워 준다며 뛰어난 힘과 체력 덕분에 장거리 수영을 추천 받았다고 했다.

이번 대회와 대변인 타이베이 마잉조 시장은 늦게 출발한 것에 대해 두려워 말고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장거리 달리기와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과 힘입니다. 그러므로 늦게 출발했다고 반드시 경기에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 시장의 생각은 수행을 할 때도 적용이 된다.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시간을 잘 살려서 수행한다면 점점 더 높은 세계로 오를 것이다. 그리고 끈기 있게 모든 도전을 이겨낸다면 운동 경기에서 그렇듯이 수행에서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스승님께 드리는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 축하 카드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생신축하 사진과 전세계 센터 동수들이 칭하이 무상사에게 보낸 아름다운 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pecial_report/2005MotherDay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special_report/2005MotherDay

<http://www.godsdirectcontact.org/2005MotherDay>

<http://godsdirectcontact.us.com/motherday/2005>



시

은혜로운 오월 어느 날

정 계순 사저/ 한국 서울 (원문 영어)

제가 당신께 모든 오월의 꽃들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당신께 오월 꽃들의 모든 색채와 향기를 담아

편지를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이 아름다운 오월에 당신을 위해 시를 쓸 수 있다면

제가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왕이신 당신을 그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난 당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느낌을 절대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고

당신은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셨으며

당신은 제게 영원히 끝나지 않은 사랑을 가져다 주셨어요.

수천 년 간의 갈망은 사랑의 눈물과 함께 끝이 났어요.

당신의 현존 안에서

그 어떤 말로도 이 깊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직 제 가슴 안에서 흘러 넘칠 뿐입니다.

영원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당신을 찬미하는 모든 꽃들과 함께하며

당신을 찬미하는 모든 나무들과 함께하며

당신을 찬미하는 모든 별들과 함께하며

당신을 찬양하는 온 우주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전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 아름다운 오월에!



최고의 선물을 갖고 오신 스승님

2005년 유럽 순 행사기

헝가리 뉴스그룹 (원문 영어)

갑자기 나타나신 스승님

이 모든 것은 2005년 2월 21일 나른한 월요일 오후, 한 헝가리 동수가 관음사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있다면서 시골에 있는 센터를 급히 방문하고 싶어했다. 뒤이어 많은 사람들이 전화 연락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십여 명의 헝가리 동수들이 들뜬 모습으로 관음사자와 함께 중국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2년 넘게 뵙지 못했던 우리의 '빅 시스터' 스승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1999년 유럽 순회 강연 이후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처음으로 헝가리에 오신 것이어서 우리는 놀라움과 행복감에 어쩔 줄 몰랐다!

낡은 헛간이 명상 홀로 태어나다

그날 저녁 우리 모두는 센터로 향했다. 그곳은 난방 시설도 없고 교통도 불편했기 때문에 겨울 동안 한 번도 단체명상 장소로 쓰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통 사형 한 사람만 센터를 지키며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의 빈틈없는 지시에 따라 그곳은 이들도 안 되어 겨울 순 행사 장소가 되었다! 몇 대의 이동 주택이 센터 자산에 새로 포함되었고, 원래 여름 순 행사 때 욕실로 사용되던 벽돌로 된 헛간은 아늑한 명상 홀로 바뀌었다. 여기에 전기식 석유난로를 여러 대 설치하자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겨울 선 장소로 바뀌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에 눈도 자주 내리는 외딴 곳에 있는 그 센터는 사실 들어오는 길도 흠뻑길이어서 다니기가 어려운 탓에 모두들 은밀하고 고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신실한 마음으로 많은 동수들이 참석하다

이튿날 스승님은 유럽 동수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동수들에게만 이 특별한 모임을 알려되 스승님이 계시다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동수들의 이름을 손수 확인하셨다. 예사롭지 않은 소식을 알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유럽 각지의 동수들이 센터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스승님이 계시길 바란 동수들도 있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온 동수들도 있지만 모두 스승님께서 정말 계신 것을 알고는 무척 놀라고 기뻐했다. 어떤 동수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다른 동수들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기도 했다.

철야 선 행사 동안 펼쳐진 경이로운 명상

선이 시작되자 스승님은 우리에게 “삶을 명상으로 만들라”고 타이르시며 우리가 스승님의 가르침에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짜 주셨다. 또한 스승님과 함께 이곳에서 명상하는 것은 매우 값지다고 하시며 스승님과 함께하는 1초의 명상이 다른 곳의 1시간 명상과 맞먹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도 밤낮으로 명상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자지 않고 명상해 보니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며칠 동안 아무도 자지 않았다.(적어도 눕지는 않았다.) 우리는 하루 두 번 식사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명상만 했다. 이렇게 우리는 텐트를 치거나 추위에 떨면서 잘 필요 없이 하루 종일 따뜻한 명상 홀에서 행복하게 명상만 하는 실제적인 이로움을 누렸다. 열에 아홉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여겼던 이런 단순한 생활에 모두 행복하고 만족했다. 스승님은 지금부터 이 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철야 명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세상 너머의 고차원적인 가르침이 전해지다

선 행사 동안 스승님은 매일 적어도 한 번 이상 우리와 함께 명상하셨고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많은 정보를 알려 주셨다. 스승님은 여느 때처럼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모습으로 최근 외판 동굴에서 안거하신 이야기를 해주셨다. 또한 안거 중 이유도 없이 위험한 일을 몇 번 겪었다고 하시며 지금 마야는 크게 다친 동물과 같다고 덧붙이셨다. 마야가 패배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바로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라서 스승님은 세상 사람들이 현재의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은거해서 계속 명상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밖에 스승님은 천상의 세계들을 빠짐없이 톡톡하게 설명하시다가 가장 높은 경지까지 이야기해 주셨다. 스승님은 바로 이 우주의 가장 높은 세계에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당신이 맡은 일은 지구를 구하고 중생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하셨다. 역사적으로 예언된 최후의 심판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큰 재난으로 나타날 뻔했다고 말씀하시며 스승님이 내려오셔서 재난을 누그러뜨려 지구를 구하고 고양시켰다고 하셨다. 현재 스승님이 맡은 일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새로운 은하계 구조가 제자리를 잡고 지구도 고양되어 이제 청소 작업만 조금 남았을 뿐이라고 한다.

깊은 감사로 더 나은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하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또 당신도 우리와 선 행사를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셔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삶의 가장 큰 선물로 감사하게 여기며 될 수 있는 한 오래 머물려고 했다. 하지만 약 2주 후 스승님은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떠나셔야 했다. 스승님이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슬퍼했지만 우리는 스승님과 함께 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며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스승님,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 '좋은' 제자 그 이상이 되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승님 삶의 모든 순간에 최상의 것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신의 은총 속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낙 페렌고 사형/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헝가리어)

이 놀라운 이야기는 스승님의 자비를 거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5년 2월 21일 오후, 막 퇴근하자마자 아는 관음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되도록 빨리 부다페스트 센터로 와서 자기를 태워 여름에만 사용하는 시골 센터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누가 농담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막 비행기에서 내렸으며 30분 안에 센터로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매우 마음이 들떴지만 왜 그가 시골의 눈 덮인 센터를 가려고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상상이 안됐다. 여느 때처럼 시내로 가는 길은 많이 붐볐다. 같은 동수인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 더 빨리 가자고 해서 나는 최대한 빨리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차 안에 있던 내 마음을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흥분된 마음뿐이었다.

부다페스트 센터 앞에 도착하자 우리 부부는 주차하고 있던 택시 옆을 스쳐가면서 택시에 타고 있는 관음사자와 한 사저를 보았다. 관음사자가 택시에서 내리며 자신이 하는 말을 택시기사에게 통역해 달라고 했다. 택시 기사에게 관음사자가 하는 말을 통역하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던 '사저'가 기사에게 많은 돈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다려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번개를 맞은 듯 깨달았다. 천상의 진동이 함께하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내 인생을 끊임 없이 행복으로 채워 주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난 뒤돌아보고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가! 그때까지 나는 비디오나 꿈에서나 스승님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니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스승님은 차에서 내려 우리를 안아 주셨고 그제야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다. (꿈에서는 스승님이 안아 주시기 전에 깨어나곤 했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직접 껴안아 주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나는 너무 기뻐서 기운이 펴졌다.

그날은 흐리고 추웠지만 스승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피어나고 태양마저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임을 알고 나자 엄청나게 행복했다. 스승님은 잠시 부다페스트 센터를 둘러보시고 미리 마련해 둔 의자에 앉아 망고 주스를 드신 후 우리와 함께 시골 센터로 이동하셨다.

가는 동안 스승님은 중국식당에 들러 우리에게 저녁을 사 주셨다. 스승님은 식당 주인에게 우리

가 불교인이라 채식만 한다면 어떻게 채식요리를 하는지 설명하셨다. 스승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요리를 시켜 주시곤 근처에 사는 다른 동수들도 부르라고 하셨다. 물론 우리는 동수들을 놀라게 해 주려고 식당으로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말해 주지 않았다. 다른 동수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스승님은 손수 음식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와 즐겁게 농담을 나누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수들이 하나둘 차례로 도착했으며 스승님은 그들을 한 사람씩 안아주셨다. 동수들은 스승님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으며 모두들 가슴이 벅차 올랐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물건을 조금 산 뒤 시골 센터로 향했다. 며칠 후 우리는 스승님의 은총 속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양된 선 행사에 참가했다.

한겨울의 꿈, 축복 받은 낙원

포도르 마리아 사저/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헝가리어)

부다페스트 연락인에게 중국식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받았던 그 날은 정말이지 축복 받은 날이었다. 나는 옷 몇 가지와 관음보를 가방에 챙긴 다음 택시를 잡으려

고 뛰어나갔다.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택시가 내 앞에 멈추더니 손님이 차에서 내렸다. 택시에 타기도 전에 나는 운전사에게 갈 곳을 알려 주고 늦었으니 서둘러 가자고 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관음사자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이 기대에 찬 밝은 얼굴로 식당 한쪽의 커다랗고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이어 그 속에서 스승님을 발견한 순간 나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스승님 가까이에 있고 싶었다. 마침내 내가 식탁에 앉자 스승님은 “꿈을 꾸는 것 같지요!”라고 하셨다. 스승님께서 내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말을 건네시자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스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스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바랐던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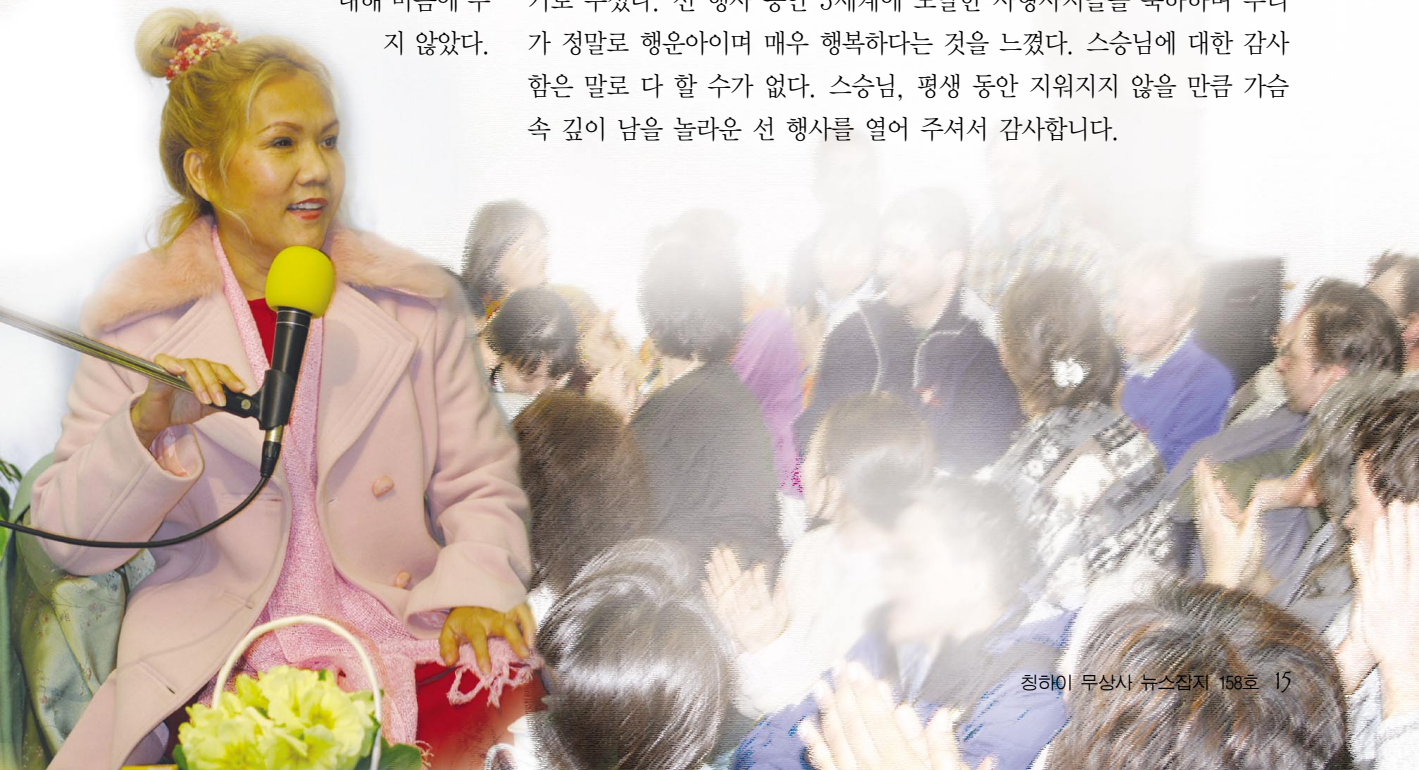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스승님이 와 주시기를 애타게 원했던 헝가리의 시골 센터로 향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한겨울의 꿈처럼 느껴졌다.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부는 센터는 우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여기저기 쥐가 다닌 흔적이 있고 부엌은 지저분해서 물도 마실 수 없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남을지 떠날지 결정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서 기꺼이 남기로 했다. 이어서 며칠 간 유럽의 전 동수들이 스승님을 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 채 선 행사에 모여들었으며, 스승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누구도 불편함에 대해 마음에 두지 않았다.

선 행사를 마련하는 동안 스승님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함께 돌보셨으며 이동 주택도 몇 채 사주셨다. (너무 추워서 텐트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서 욕실은 명상 홀로 바뀌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난로를 놓고 벽 사이 틈을 메웠으며 드나드는 문 위로 두꺼운 커튼을 쳐서 우리는 밤에 그곳에 머물며 명상할 수 있었다. 부엌도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차려졌다. 스승님은 선 행사 동안 세 번이나 바깥식당에서 음식을 시키시며 우리가 음식을 차리는 데 너무 애쓰지 않도록 하셨다.

스승님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빈틈없이 보살피셨고 센터의 개들도 당신의 이동 주택에 들어 오도록 해주시고 따뜻한 잠자리도 만들어 주셨다. 또한 우리가 진흙탕에서 신을 수 있도록 장화도 사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돌보신 이야기일뿐이고, 우리의 영성에 대한 돌보심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말 큰 선물이자 진짜 축복은 스승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와 온 우주가 스승님에게 받고 있는 끊임없는 영적인 축복은 상상할 수도 없다. 특히 선 행사에 참가한 동수들은 스승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견디시는지 경험했으며 신의 은총 없이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선 행사 동안 우리는 마치 낙원에 있는 것 같았다. 스승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과 인내, 무아, 놓아버림, 겸손, 끈기, 규율, 집중력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되었다. 스승님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너그럽게 대하셨으며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 또한 물음에 대답해 주시고 농담을 하시며 노래를 불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드높이는 최상의 선물을 무더기로 주셨다. 선 행사 동안 5세계에 도달한 사형사자들을 축하하며 우리가 정말로 행운아이며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스승님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스승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가슴속 깊이 남을 놀라운 선 행사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유럽 선 행사에서 얻은 귀중한 축복

페고 타마스 사형/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영어)

부다페스트 외곽에서 열린 2005년 유럽 선 행사 동안 스승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운 좋게도 스승님의 성스런 강연을 매일 들을 수 있었을 뿐더러 스승님의 해아릴 수 없이 깊고 실제적이면서도 영감이 넘치는 모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번 선 행사에서 내가 맡은 일은 물건을 대주고 동수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다.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되도록 빨리 일을 보고 스승님 곁에서 너무 오래,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심부름을 마치고 선 장소에 가까이 올 때면 스승님의 엄청난 축복이 느껴졌다. 그건 마치 명상할 때 사랑의 바다에 잠긴 듯한 느낌 같기도 하고 꿀벌이 벌통으로 돌아올 때 주체할 수 없이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다.

차를 타고 다니며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센터로 들어오는 마지막 1.5킬로미터는 차가 진흙탕에 빠지고 꼼짝할 수 없는 길이어서 저녁 7시 이후에 땅이 얼어야만 겨우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은 선 행사 동안 내가 어려움을 겪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다른 차들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길을 나는 기적처럼 몇 번이고 잘 다닐 수 있었다.

물건을 사고 심부름하는 한편, 나는 스승님의 운전기사가 되는 영광까지 얻었다. 스승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스승님은 당신을 2년 동안 안거를 끝내고 문명사회로 돌아온 ‘동굴의 여인’이라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문명사회’로 돌아오신 스승님을 위해 물건을 사고 개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다. 개 이야기를 하시며 스승님은 센터에 있는 개 세 마리가 처음에는 스승님을 보통사람 대하듯 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스승님의 개 구디(Goody)가 센터의 조그만 검둥개에게 텔레파시로 스승님을 잘 보살피라고 말하자, 다음날 세 마리 개들이 스승님이 계신 이동주탁 앞에서 점잖게 기다리다 저마다 나름대로 스승님을 맞이했다고 하셨다. 스승님은 또한 나의 늙은 개를 돌보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그에게 비타민과 약을 사 주라고 돈도 주셨다. 스승님은 이렇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너그러움과 자비심을 보여 주셨다.

스승님은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복잡한 것은 싫어하셨으며 우리에게 재빠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바라셨다. 스승님께서 이를 만에 버려진 곳을 편안한 명상 센터로 바꾸고 선 행사를 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효율성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또한 스승님은 선 행사 간의 시간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다!

나와 다른 참가자들이 2005년 유럽 선행사에서 얻은 끝없는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우리에게 끊임 없이 축복을 주시는 스승님, 감사합니다.

윙크의 힘

타녹 주잔나 사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헝가리어)

사랑하는 스승님께

저는 이번에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당신을 직접 뵈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승님을 세 번 만났는데 마지막은 오 년 전 선 행사에서였습니다. 전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한 동수들도 많으니까요. 이번 만남에서 스승님께서 제게 주신 은총은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입니다. 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 2월 22일, 부다페스트 센터로 단체명상을 가던 길에 한 사제가 시골에 있는 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으니 텐트를 가져 오라고 말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헝가리에서 겨울밤을 텐트에서 지내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곧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센터에 도착한 저는 동수들로부터 당신이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는데 거기서 당신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돌아서며 제게 윙크를 하셨지요. 전 할 말을 잃고 활짝 웃었지만 당신께서는 저를 마치 옛 친구처럼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뜻밖의 교감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용기를 분돈아 주는 윙크를 해주셨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며칠 동안, 스승님은 저에 대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구나 제 실수를 바로잡아 업장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변하게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 행사 동안 우리에게 노래를 해 주셨던 특별한 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스승님은 마치 작은 나이팅게일처럼,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엄마처럼 우리가 명상할 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건 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늘 꿈꾸던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스승님께서 무소부재하시지만 당신이 높은 세계에 갔다 돌아오시는 동안 가까이 앉아 당신을 보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두뇌로 신성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알고, 우리의 심장은 당신과 함께 뛰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스승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 대답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안아 주시고 멀리서 입맞춰 주시고 축복사탕으로 저의 지혜안을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눈맞춤과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보살핌, 다른 멋진 것들과 일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오직 수행과 헌신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포용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25일
제자 타녹 주잔나 올림



먹을 때는 말을 삼가라

청하이 무상사/ 1995. 12. 23.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17

밥 먹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하면 오래 잘 씹지 못하니까요. 영적인 면이 아닌 물질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말을 하면서 먹으면 음식이 위가 아닌 폐나 코로 잘못 들어가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설명말고도 먹을 때 말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의 모두 그때 마귀가 입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입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통로이고 많은 시간 동안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마귀가 우리를 지배 하려고 하면 입으로 재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으면서 계속 말을 하면 마귀는 그 소리를 듣고 음식과 함께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면 음식을 더럽혀서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나쁘게 해서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전염병에 걸리고도 알지 못합니다.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지만 아직 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서 동시에 말을 하면 온갖 세균들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이마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퍼뜨린 세균 때문에 더러워진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먹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면 음식에다 대고 말하지 마세요. 밥상에 가까이 대고 말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오래 여러분의 숨이나 침 때문에 병균이 음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병균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에 새순이 돋다

예비 입문자 조우 홍/ 캐나다 토론토

사랑하는 스승님께

스승님, 안녕하세요!

오늘 전 스승님께 편지를 써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5개월 째 방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문한 것은 아니지만 스승님께서 언제나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놀랍게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편 수행을 하기 전에는 특하면 화를 냈고 때로는 비열하고 속좁게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의 단점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스승님 말씀처럼 많은 생을 거치면서 쌓인 습관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불쑥 튀어나와 저 자신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 생활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삼십 줄에 접어든 제가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단점들을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승님을 알게 된 후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온갖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도리에 어긋난 비난을 참아야 할 때마다 저는 스승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비난도 큰 인내심으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놀라운 보살핌으로 에고를 없애고 화내는 버릇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할 때도 언제나 스승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강해진 저는 이런 면에서 스스로 많이 좋아졌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제 상사가 기차역까지 저를 태워다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일하는 저의 태도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저도 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를 알아주는 말을 듣고서 뭇 듯이 기뻐고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사는 제가 누구도 비평하지 않으며, 항상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용서하며 동료를 생각하고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 중년이 되어 가는 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깊이 사랑해 주시고 제 인생을 새롭게 바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며 정말 뵙고 싶습니다.

스승님께 큰절을 올리며
토론토에서 조우 홍 올림



신실하게 수행하면 모든 삶이 아름다워진다

청하이 무상사/ 1997. 12. 26. 미국 워싱턴 D.C.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08

질문자 1: 저는 사실 질문은 없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입문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씩 그 궁금한 것이 풀려 갔습니다.

스승님: 내면으로 말인가요?

질문자 1: 예. 내면으로도 그렇고 스승님의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책을 보면서도 풀렸습니다.

스승님: 그렇지요.

질문자 1: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승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말씀조차도 될 수 있는 대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스승님 가르침에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명상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우리는 황금시대로 다가갈 모든 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값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후원하러 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았고 온갖 의문으로 고민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생겼고 적어도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천만에요.

질문자 2: 안녕하세요. 스승님. 저는 방금 이야기한 사형 말에 모두 동감합니다. 바로 제가 생각하던 대로입니다. 저는 입문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체험은 그리 많지 않지만 삶과 주위는 더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더 고귀해진 느낌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이도 더 좋아졌고요. 저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며, 더 수행을 하다 보면 체험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승님: 예,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내면의 빛을 보고 소리를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희미하거나 가끔씩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빛은 자주 보면서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중력 때문입니다.

집중력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가 가진 업이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일들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리고 때로는 미처 모르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고 업장이 무거운 사람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수행자의 삶은 언제나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지며 이 세상 슬픔과 욕망, 탐욕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정말 현명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한 수행자가 얻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으려면 수행해야 합니다.

질문자 2: 저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와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일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 통치약’

청하이 무상사/ 1991. 3. 9. 미국 콜로라도 보울더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59

질문자: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장애는 자신을 깊고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커가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거나 많은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스승님: 예, 나는 한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관음법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더 이상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지 알 것이며, 일부러 알맞게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처리하는 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이 그냥 저절로 바르게 되는 거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인습과 관습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 부모들은 그것을 ‘버릇없고, 엉망이며,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지우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그 훌륭함을 몸소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 법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알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문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 안타깝습니다. 관음법문은 단 하나뿐인 길이며 가장 좋고, 가장 빠르며 어떤 부작용도 없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나는 관음법문이 모든 병과 자기와 타인에 대한 미움, 세상의 모든 무지와 좌절, 고통과 오해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치료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직접 신을 알게 되면 저절로 치유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면 긍정적인 상황이 따른다

청하이 무상사/ 2000. 5. 12. 한국 영동 국제 선육 (원문 영어)
DVD No. 701

선 행사 동안 한 사제가 늙으신 어머니는 입원해 있고 아이들과도 같이 지내지 못한다며 스승님께 어려움을 얘기했다. 스승님은 사제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음과 같은 통찰력 깊은 조언을 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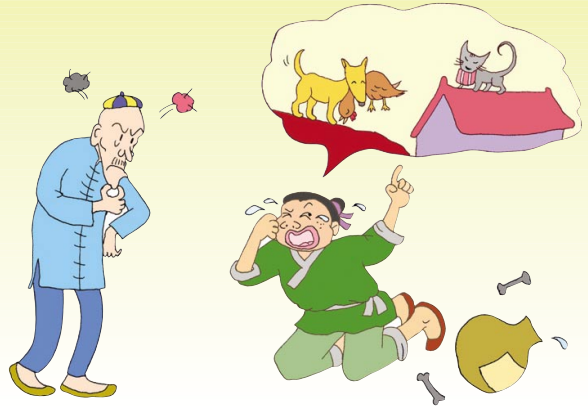
병이 있는 곳에 생각을 두지 말고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참한 일이나 여러분 영혼의 속하지 않는 곳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훌륭하고 멋진 것만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사물의 나쁜 면만을 바라본다면 눈 앞에 있는 좋은 면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병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꾸밈만 하는 품성과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불평만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지 않고 계속 아프기만 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깐요. 아프고 좋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행복을 억 누르는 온갖 것으로 머리가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말고는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좋지 않은 생각에 싫증이 나야지만 좋아질 것입니다.

겉모습은 믿을 게 못 된다

청하이 무상사/ 1996. 5. 12. 캄보디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44



옛날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출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하인이 음식을 먹고 잘 익은 포도주를 마셔 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피를 내어 부러먹기 편하고 음식을 훔치거나 변명을 하지도 못할 것 같은 아주 멍청해 보이는 하인을 골라 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바심이 나서 그 하인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에게 “지금부터 집을 잘 지켜라. 부엌에 돼지고기가 걸려 있는데 잘 지키고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부엌 옆에 있는 닭도 손대면 안 된다. 개나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게 해서는 안 돼. 저쪽에 잘 봉해진 단지는 쥐약이니까 절대 건드리선 안 돼.”라고 말했어요.

주인이 나가자 하인은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닭도 잡아 먹으며 술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는 기분 좋게 술에 취해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인은 주인의 긴 의자에 누워 술 냄새를 풍기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하인이 자면서 발로 걷어찬 닭 뼈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하인을 깨워서 물었어요 “이봐! 닭과 돼지 갈비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내 포도주, 아니 쥐약은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하인은 대성통곡을 하더니 바닥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제발 소인을 용서해 주세요! 소인은 주인님 말씀대로 집과 모든 것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웬 고양이가 들어와서는 부엌 지붕으로 올라가 돼지고기를 가져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 한 마리가 고

양이가 하는 짓을 보더니 닭을 잡아 먹었고요. 전 주인님이 돌아와 소인을 꾸짖고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독약을 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직 살아 있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멍청해 보인다고 해도 진짜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냥해 보여도 반드시 상냥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그 사업이나 노력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겉만 보고 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스승을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달콤한 것을 좋아해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예의 바른 태도, 우리의 애고와 눈과 습관을 즐겁게 하는 다정한 방식들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친절하고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로 상냥하게 대하는 스승이나 선생은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성격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훈련된 비행기 승무원과 같은 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해주거나 내면에 진정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드럽게 말하지만 매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과 사회에 좋지 않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요. 이런 경우 그 사람이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혹은 크게는 사회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겁



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일과 노력의 결과이지 외모나 반응, 생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막대기 같은 것으로 환전상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상을 엮었다는 얘기를 들어 봤을 겁니다. 큰스승이 그렇게 하는 것이 품위 없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인류를 위해 큰 선행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는 당시 그의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온 인류에게 여전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부들이나 관리들이 말을 부드럽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것처럼 훌륭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나 가족,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어서 아주 부드럽게만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타고날 때부터 성대에 문제가 있거나 목이 막혀 있어서요. 그러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신중해야만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은 믿을 게 못 되니까요.



살려줘요

칭하이 무상사/ 1996. 5. 12. 캄보디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44



옛날에 아주 쪼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서 강을 건너려다가 물살이 너무 세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급류에 휩쓸려 강 한 가운데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소리를 쳤어요. “누가 나 좀 살려줘요, 돈을 주겠소!”

마침 가까이에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좋아요. 50달러를 주면 당신을 구해주지요.” 그러자 물에 빠진 사람이 대꾸했어요. “50달러라고! 너무 비싸요. 20달러를 주겠소.”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안 돼요. 너무 험값이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강물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소. 30달러!”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은 “안 돼요. 최소한 40달러는 줘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물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차, 차, 차라리 죽는 게 낫겠소!”



스승님의 보호로 사고에서 기적같이 살아남다

구술: 샤오광 · 샤오지 사저/ 중국 본토

기록: 동수 (원문 중국어)

2004년 여름, 집을 떠나 여행 중이던 샤오광 사저와 샤오지 사저는 ‘기적같이 살아남았다’라는 말에 딱 맞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있던 날 길을 건너던 사저들은 시속 120킬로미터로 달려오던 흰색 승용차에 치였다. 너무 강하게 부딪치는 바람에 샤오광 사저의 몸이 공중에 붕 뜬다. 앞쪽 길 위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다시 한 번 그 차에 치이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차 앞 유리가 부서졌고 그녀는 차에서 튕겨져 땅에 떨어졌다. 한편 샤오지 사저는 10미터 밖으로 떨어졌지만 바로 일어나 샤오광 사저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보기 위해 자신의 발로 걸어갔다. 샤오광 사저에게 외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 귀에 대고 부드럽게 말을 하자 샤오광 사저는 장난기 어린 윙크로 대답했다.

바로 구급차 한 대와 경찰들이 도착했고 운전사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경찰들은 차가 급제동할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다. 사저들을 병원에 급히 옮기는 동안 사고 운전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병원 검사 결과 샤오광 사저가 요추에 압박골절상을 입기는 했지만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의사는 말했다. 샤오지 사저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둘 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샤오지 사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더 밖에 있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당신 교통사고 당했지? 어젯 밤 꿈에 두 사람이 흰색 승용차에 치였는데 그 순간 하얀빛이 나는 존재가 두 손으로 차를 세워서 무사했어! 스승님이 둘을 구하신 게 분명해!”라고 했다. 샤오광 사저의 오

빠도 문병을 와서 “스승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을 거야.”라며 같은 생각을 얘기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까이 사는 동수들은 두 사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채식 음식도 가져다 주며 관음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었다. 병원에 있으면서 샤오지 사저는 스승님으로부터 열흘 이내에 몸이 좋아져 퇴원할 것이라는 내면의 메시지를 들었다. 샤오광 사저는 입원해 있는 동안 날마다 스승님 불찬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 다른 환자들도 스승님의 가피를 얻어 중상을 입었던 몇 사람도 빠르게 회복돼 퇴원했다. 몇몇 관음법문에 많은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스승님 견본책자를 받고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들도 채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외과과장도 30년 의사 생활 동안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이렇게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샤오광 사저를 ‘미세스 부처’라고 불렀다.

나중에 뺑소니 운전사가 잡혔다. 그에게 왜 도망갔냐고 묻자 그는 “너무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둘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라고 말했다.

최근 몸이 회복된 샤오광 사저는 매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교통사고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건 분명히 사고로 꾸며진 축복이라고 느끼며 매우 감사했다. “저희에게 새 삶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3. 10. 29.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88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성인이라 부르고 성인의 가르침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살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스승이 어떻게 세상을 보살피고 제자들을 책임진다고 큰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영적으로 제자들을 돌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스승의 의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물질적인 도움과 맞바꿔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인이 되기 위해 배우고 있으며 스승이 되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스승이 되는 거룩한 길을 가면서 ‘스승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봐 야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작은 신들과 여러분에게 의존해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로 토속 신이나 이상한 신에게 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제물을 바

치지 않으면 신들이 배고파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 신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면 음식과 돈을 받는다면 폭력단 두목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력단 두목은 포주들을 보호해 준다는 구실로 돈을 걷으니까요. 만약 신이 그런 거래나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은행이나 환전소에 대고 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신에게나 절하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실망할 것입니다. 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머지않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구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 독립심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독립심과 생존 투쟁 정신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으니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보호자가 되고 싶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린 영혼들의 수호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크거나 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작은 집을 사거나 부자에게 돈을 받고 집을 빌려 주세요. 재정적인 문제에 빠져 남에게 기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자부심과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스스로를 돌보고 절대로 남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되면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아니면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 급한 상황이라면 보험에 들어서 괜찮다 해도 재난을 당한 직후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집이 없어서 춥고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도와 준다면 도움을 받아야지요. 자존심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강해지고 일을 하게 되면 다음 번 재난에는 여러분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스승이 독립적어야 한다고 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난 지금 죽어야 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라면 나도 “좋아요, 죽으세요! 당신은 너무 어리석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라고 말할 겁니다. (대중 웃음과 박수) 사회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그런 사람은 되도록 빨리 죽는 것이 좋



다고 말해 줄 겁니다.

그러니 융통성을 가지세요. 내 가르침을 배우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때에 알맞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때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십시오. 부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처와 다르게 가르친다거나 부처와 똑같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는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넌 후에 손에 들고 다니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너희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다음에는 뗏목을 가져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뗏목이 쓸모있는 도구였지만 건넌 다음에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만약 계속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주위 나무나 사람들과 부딪칠 것입니다. “이 뗏목은 나를 도와준 물건이니가 의리를 지켜야 해. 나는 이것과 함께 자고 무덤까지도 가지고 갈 거야.”라고 한다면 금방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습지 않겠어요?

세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

수행자가 융통성이 없고 인류를 돕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부처이지요. 오로지 ‘살아 있는’ 부처만이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을 돌볼 때는 여러분의 지혜를 쓰도록 하십시오. 힘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영적으로 세상의 기운을 깨끗이 할 뿐 아니라 돈과 물질 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스스로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지혜라는 한쪽 면만 기른다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우리는 많은 빚을 집니다. 적어도 물질적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장해서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은혜에 어느 정도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돈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한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도움이 되며 길게 보자면 세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진정한 자유

청하이 무상사/ 1999. 8. 4. 미국 뉴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4

신의 일을 하면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단지 업장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신의 일을 하면 매우 고양되고 정말 좋습니다. 신의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단지 내 몸이 피곤해지지요. 그것은 물질세계와 신의 본성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물질세계는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좋은 일을 못하게 하며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말하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항상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우리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높은 차원을 생각하는 고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단체명상을 하고 진정으로 고귀한 존재들과 접촉하며 고귀한 생각만 해서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정말 굉장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물질적이기만 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떤지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구속하고 억압하며 그들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건 정말 힘들니다. 지금 여러분은 항상 고귀한 사람들 사이에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입니다. 만약 전세계 사람들이 그렇다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대중 박수) 태어난 나라와 생활 배경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 개개인 영혼만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충분히 강하면 어떤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어떠한 영향도 이겨내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해야 하며 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배경이나 전쟁, 국가, 민족, 관습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24. 한국 동수들과의 인터넷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8

수행과 세속 생활의 조화

질문: 스승님, 저는 수행과 세속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스승님: 열심히 노력하세요! 알겠지요?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균형 잡기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문제가 뭐지요? 질문이 너무 막연하네요. 당신의 문제가 정확히 뭐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질문: 스승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지식보다 지혜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속의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까?

스승님: 아니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 경력을 쌓기 위해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흥미로운 책을 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관심 있는 비디오가 있고 그것을 본 다음 삶이 더 눈부시고 좋아진다면 봐도 됩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명상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나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하루 종일 명상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이나 해 왔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뭐든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 명상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명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학잡지를 읽기도 하고 국제 뉴스를 통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보기도 합니다. 나 또한 많은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책도 읽고 개들을 데리고 나가 산책도 시키고 먹이를 주며 놀아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이것들도 내 일입니다.

날마다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세수도 하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명상도 하며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것에 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명상은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

질문: 저는 어떤 때에는 감정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있으면 사랑, 증오, 시기, 좌절, 압박감 등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때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으로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이해합니다. 수행을 많이 해서 당신의 자장이 더욱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바깥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더 민감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럴수록 더 많이 명상해야만 이 모든 압박과 좌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질문: 그럼 명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가요?

스승님: 예. 명상을 더 많이 하면 그 답답한 느낌을 이겨낼 만큼 강해질 겁니다. 정말 안됐군요. 당신이 어떤 느낌인지 나도 압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가르쳐 여러분이 이런 모든 문제와 주위의 거친 기운을 이겨내도록 하려는 겁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 답답한 느낌보다 강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위의 압력이 커질수록 당신은 날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세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십시오.

질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입문자의 업장은 인스턴트 커피처럼 빠르고 강하다

질문: 관음법문 수행자가 오계를 어기면 어떤 업장이 옵니까?

스승님: 업장이 오면 알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하지만 그 업장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로 계율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일반 사람들이 우주 법칙을 어기면 그들에게 갚을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세해탈을 원하므로 모든 이자와 함께 한번에 신속히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벌칙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업(定業)과 신업(新業)

질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정업인지 신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승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못된 일이 없다면 정업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거나 계율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면 계율을 어긴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에 아홉은 정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우주 법칙을 어기지 않고 악업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인과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보통 오계를 지키고 스승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명상을 한다면 거의 모두가 정업입니다.

영적인 시험의 본질

질문: 저는 가끔 어려운 마야의 시험을 겪습니다. 내면과 외면에 장애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비틀거립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스승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님 힘에 의지하며 신실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수행에 대한 믿음과 자유로워지려는 성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의 훌륭한 자아와 연결되고 좋고 나쁜 판단에서 벗어나고 모든 시험과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비결

질문: 스승님, 더 빨리 진보해서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내가 가르쳐 준 관음법문 외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속세에 살면서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초연합니다. 그것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비결입니다.

비결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고 이 세상과 영적 세계를 보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는지, 철학이나 내면의 생각이 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행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많이 명상할수록 이 세상은 단지 꿈일 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초연해집니다. 그리고 초연해질수록 더 빨리 진보합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동안에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가 케냐의 버려진 아기를 구하다

(원문 영어)

[케냐 나이로비] 2005년 5월 6일, 케냐 숲에서 버려진 갓난아기가 떠돌이 개에게 구조되었다. 개는 아기를 데리고 변화가를 가로질러 철조망을 통과해 나무와 물결무늬 쇠붙이로 만들어진 오두막으로 갔다. 두 아이들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가 보니 아기는 헛간 근처에서 강아지와 함께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아이들을 따라 밖에 나가 집 근처와 밭 주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라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메리 애드히암보(Mary Adhiambo) 씨가 말했다.

주민들은 마침내 진흙이 묻은 채로 찢어진 검정 셔츠에 싸여 있는 몸무게가 3.3킬로그램이 나가는 아기를 찾아냈다. 황갈색의 잡종견이 누워서 새끼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기는 그 옆에 있었다. 애드히암보 씨는 아기를 씻기고 탯줄을 닦은 다음 새 옷을 입히고 우유를 먹였다고 신문 기자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주민들은 아기를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갔고 아기는 그곳에서 다시 케냐타 국립 병원(the Kenyatta National Hospital)으로 옮겨졌다.

병원 직원들은 아기에게 ‘엔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의사들은 그 아기가 개에게 발견되기 이틀 전에 버려진 것으로 여겼다. “탯줄이 감염되어 있



어서 입원을 할 때는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아주 조용합니다. 잘 먹고 잘 잡니다.

오늘 아침에 아기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하품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사랑 받는 ‘므콤보지’.

리고 또 쳐다보면서 다시 하품을 하더군요. 이제 괜찮습니다.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지금 그 애는 격리된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다른 아기를 간호하는 부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아이처럼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엔젤을 위해 기저귀와 아기 옷을 기부하고 있고요.”라고 병원 대변인인 한나 가쿠오(Hannah Gakuo) 씨가 말했다.

아이를 구했던 떠돌이 개도 화요일(5월 10일)부터 돌보고 있다고 케냐 동물 보호 관리 협회의 진 길크리스트(Jean Gilchrist) 씨가 말했다. 동물 복지 담당자는 개에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므콤보지(Mkombozi)’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깨끗이 씻기고 소독했다.

정부 대변인 알프레드 무투아(Alfred Mutua) 씨는 정부 당국이 이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가 아기를 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살면서 겪는 설명하기 힘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될 테니까요. 이는 누군가가 위에서 우리를 굶어 살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abclocal.go.com/wls/news/strange/050905_ap_sn_dog_saves_life.html

<http://www.guardian.co.uk/worldlatest/story/0,1280,-4993614,00.html>

http://www.salon.com/mwt/wire/2005/05/09/stray_dog/index_np.html

환경파괴 대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한 조명대 씨

사람들은 오직 구호금이 얼마나 모였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재난은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재난에 대한 학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 조명대

지난해 말 유례 없는 지진해일(쓰나미)이 남아시아를 덮쳐 수십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재난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지난 28일 밤늦게 리히터 규모 8.7의 강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연안 인도양에서 발생해 스리랑카, 인도 해안지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도양 주변국은 다시 지진과 쓰나미 공포에 휩싸였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조명대(38) 씨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재난들은 자연재해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며 “개발 논리를 앞세워 환경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당장 피해지역에 달려갈 수도 없고 지난해 발생한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암담했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쓰나미 피해지역인 스리랑카 마타라 지역 등에서 재난 구호 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마을의 모습은 참담했다. “집들은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집터에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마주했어요. 쓰레기는 뒤엎겨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주민들은 치울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으로 10여 년 간 활동하고 있다. 쓰나미 발생 후 구호봉사단이 조직돼 한국에서는 모두 31명이 마타라에서 구호 활동을 펼쳤는



조명대 씨와 다른 구호대원들은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지역에 원조를 제공했다.

데 그는 구호 봉사단 단장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 주고 봉사단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을 회복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치유 말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지요. 그리고 현지에서 중장비를 빌려 엄청나게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봉사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웠습니다. 아이들도 기뻐하고 마을도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니까 주민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원래 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 빨리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타라에서 돌아와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찾아 스리랑카 노동자들에게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재난이 나면 기금이 얼마얼마 모였다는 보도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재난에 대해 쉽게 잊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고 3주 정도 지나서 갔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조 씨는 “재난을 다른 나라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환경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술이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지 그 ‘쓰임새’에 대해 강조한다고 한다. 또 청정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녹색대학(경상남도 함양군)을 다니며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환경 교육’을 하지 않는 형편입니

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연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 결과는 꼭 돌아옵니다.” 조 씨는 쓰나미를 겪으면서 인류에게 닥친 문제의 참뜻을 바라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 기자)

대한민국 부산일보 2005년 3월 25일자

(원문 한국어)

채식하면 품성도 변해요

오는 5월 채식 비영리사회단체(NGO)로 정식 출범할 한국 채식인 협회(www.vegekorea.org/016-9295-5660)가 26일 오후 5시 처음으로 부산에서 첫 발기인대회를 가진다.

이번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설립준비위원장인 박재오(46·전북 전주시·사진) 변호사 및 하와이 채식협회장인 칼 세프(하와이대 교수·화학자) 박사가 부산을 찾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8년 간 재직하다가 “형벌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며 지난 2000년 뜻밖에 사표를 던져 세상에 화제가 됐던 사람이다. 이후 그는 얼마쯤 공백기를 거쳐 고향 전북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철저한 채식주의자인 ‘비건’ (Vegan·고기뿐 아니라 우유도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으로 변신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변호사는 ‘부업’이고 채식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채식전도사’야말로 본디 임무라며 현재 채식인구가 전체 인구의 1% 수준으로 짐작되는 우리나라에 채식의 이로움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채식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채식인들 모임



은 동호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보다 짜임새 있는 활동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NGO를 설립하게 되면 달마다 정기잡지(소식지)를 발간하고 건강, 환경, 기아, 에너지, 생명 존중, 사회 정의, 식량 안정 등 여러 가지 채식의 장점을 연구하고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발기인대회 참가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각 지역 채식인을 비롯하여 제7안식일(SDA), 불교인, 일관도 등 명상단체, 아난다 마르가 등 요가단체, 동물보호활동가, 환경활동가, 의료인 등 사회 분야 지식인, 채식식당, 채식식품 등 각 인터넷 사이트별 운영자 등으



로 매우 다양한 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채식을 한다고 하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등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이지만 지나친 육류 섭취는 사람들에게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고, 육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량 축산단지가 만들어져서 수질·토양오염을 가중시키며,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수목을 다량으로 벌목함으로써 홍수나 가뭄 같은 재난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관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 변호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채식을 통해 영성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육식을 하면서 영적으로 갇아야 할 ‘빛’이 많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먹는 습관만이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자연친화사상 등을 실천할 수 있

습니다. 채식을 하다 보면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자연이나 생명을 보는 눈도 달라지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요. 결국 내게 좋은 건, 자연에도 좋고, 우주에도 좋기 때문에, 나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한편 박 변호사는 “채식을 하면 영양결핍을 걱정하거나 너무 먹을 게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만 먹지 않을 뿐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즐기고 있으며 곡류와 야채 등에 들어 있는 영양소나 콩고기, 채식햄 등 갖가지 고기대용 식품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 급식이나 군대 배식에서도 채식주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신의 축복에 감사하고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류를 이끌자

청하이 무상사/ 1993. 10. 29.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88

신의 축복에 감사하고 신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수호천사는 가끔씩 지진, 불, 홍수 등으로 인류를 일깨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지만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을뿐더러 개인이 가진 업이나 공업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인내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신을 먼저 찾아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어린 영혼들을 도울 것입니다.

깨달음과 명상은 재해를 막아주는 열쇠

청하이 무상사/ 1995. 6. 10.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79

우리의 최고 보호막은 관음법문입니다. 명상을 많이 할수록 내면의 힘에게 보호받기 때문에 살이 너무 찌거나 마르는 것도 막아주고 물과 불도 막아줍니다. 이것 말고 내가 달리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환경 오염처럼 결코 막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설령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다 해도 업의 법칙은 때로 홍수, 지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환경 오염과 산림 훼손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주의자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태가 이미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엄청난 화재로 수많은 논밭과 산과 숲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신과 사람은, 함께 또는 따로, 땅과 산과 숲과 환경을 파괴합니다. 만약 신께서 우리 행성을 파괴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우리 각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람들을 말리는 것도 이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숲과 땅을 파괴하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니까요. 물론 지구를 지키려는 많은 단체들이 환경 보호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고 훌륭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파괴를 멈춘다고 해도 신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다거나 숲이 없어질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 지옥,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며 내면이 평화롭습니다. 재해는 사람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두 신이 만들거나 업장에 의해 생깁니다. ‘메이드 인 카르마(Made in Karma)’ 처럼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재해는 업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만약 포모사에서 만들어졌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의회에 편지를 쓰거나 대통령을 고소하는 등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만들어졌거나 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스스로 누워치고 삶의 방식을 개선하며 명상을 해서 내면의 힘과 지혜를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요.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중 박수)

인간에게서 신(神) 유전자가 발견되다

매튜 서피스 사형/ 호주 퀸즐랜드 케언스 하일랜드 (원문 영어)

“신은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가?” 2004년 10월 발행된 『타임지』에 인간 유전암호를 통해 신과 영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이 질문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http://www.americanmeditation.org/gene_god.htm)

이 기사는 이 주제에 관한 다른 과학자들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국립 암연구소(NCI)의 유전자 구조 부문 수석연구원이며 분자 생물학자인 딘 하머(Dean Hamer) 씨의 연구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머 씨는 인간 영성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성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책임지는 유전자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고 그 유전자는 인간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암호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한다.”

신(神) 유전자에 관한 하머 씨의 연구는 1998년 국립 암 연구소에서 ‘흡연과 중독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흡연자 천 명을 뽑아 심리적인 ‘기질과 개성’을 검사한 이 연구는 자기 망각의 정도(어떤 체험에 몰두하는 능력), 초자아와의 일체감(더 큰 우주와 연결된 느낌), 그리고 신비주의(실제로 증명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수용성)라는 영성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 검사를 마친 하머 씨는 영성에 따라 참여자의 등급을 매기고 영성과 유전코드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 그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본 하머 씨는 참여자의 영성검사 점수가 특정 유전자 변화와 관련이 있

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유전자의 한 부분에 특정한 핵산을 가진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영성 수치가 높았으며, 그 유전자의 같은 부분에 다른 핵산을 가진 사람들은 영성 수치가 낮았다. 이는 생물학과 영성이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스승님은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명상을 통해 우리의 유전적 성향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어떻게 과거의 성향을 이생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이 연구는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신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그들이 체험했던 지복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고양된다. 이제 이러한 성향은 유전적 조사로 부분적으로나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승님은 관음법문이 우리를 더 고양되고 더 행복하고 더 총명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 스승님은 아마도 최고의 과학자이실 것이다!

하머 씨는 그의 연구에서 발견한 유전자가 인간 영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유전자는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더 많은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계속될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 아마도 미래에는 이 ‘영성과학’ 덕분에 모든 유전학자들이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텍사스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의 봄을 가져다 주다

다이앤 응우옌/ 휴스턴 (원문 영어)



2005년 4월 24일, 밝고 신비한 봄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휴스턴 센터 동수들은 '생명의 빵 재단(The Bread of Life Foundation)'과 함께 200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맛있고 감미로운 영양가 높은 채식 식사를 나누어 주었다. 채식을 먹게 된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는 "이 음식이 채식이라는 걸 믿을 수 없어요!"라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스승님께서 그 음식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스승님의 비디오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One world...of Peace through music)'을 보여 주고 스승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다. 차분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노숙자들은 식사도 멈춘 채 비디오 화면만을 바라보았다. 불우한 형제자매들 눈에서 희망에 찬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라 신과 다시 연결해 주신 깨달은 스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날이 저물 무렵, 정기적으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 휴스턴 동수들은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스승님의 인도와 축복 없이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 노숙자들에게 신의 사랑이 가득 퍼져나가다

포틀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10년 전부터 포틀랜드 동수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노숙자 쉼터이며 독신 노숙자들에게 잠자리와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노숙자 갱생 보호소’ 그리고 도시 내의 다른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를 해 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포틀랜드 지역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겪은 탓에 이 지역 보호소들과 노숙자를 위한 봉사 활동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이에 동수들의 지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포틀랜드 센터 동수들은 한 달에 두 번 보호소를 찾아가 집에서 만든 볶음밥, 채식 치킨, 볶은 야채들, 신선한 과일, 스프링롤 같은 채식 식사와 더불어 스승님 감로법어와 이름, 웹 주소가 적힌 행운의 과자도 함께 나눠 주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특히 행운의 과자를 좋아했다.

포틀랜드의 겨울은 너무 춥고 습해서 동수들은 노숙자들에게 새 양말, 티셔츠, 두꺼운 스웨터, 장갑, 모자, 생활필수품 같은 아주 요긴한 물건들도 나눠 주었다. 또한 일자리나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 갱생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보호소에 갈 때마다 동수들은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느끼곤 했으며 그들이 감사해하는 모습을 통해 봉사의 가치를 배웠다.

신의 사랑이 노숙자들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동수들은 크게 감사했다. 왜냐하면 노숙자 갱생 보호소와 다른 보호 시설에 대한 봉사 활동은 이웃과 음식을 나눌 기회를 주고 스승님의 사랑을 보호소에 가져다 줄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동수들이 준 견본책자를 통해 스승님과 스승님 가르침을 알게 되었고 그 중 몇 명이 방편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문 영어)

수신: 희망의 별 보호소

자원봉사 담당자 엘리자베스 하틀러 귀하

텍사스 휴스턴 아드모어(Ardmore) 가 6897번지

참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하틀러 님께

저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이하 SMCH)를 희망의 별 보호소(Star of Hope Shelter)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극 추천합니다.

SMCH는 우리 '노숙자 갱생 보호소'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10년이 넘게 나누어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처지의 수천 수만 명에게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며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올해 SMCH는 남자 보호소 거주자들에게 다달이 식사를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식사 제공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예, 우리가 갈게요!”라며 종종 제일 먼저 응하곤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MCH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 도움 준비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거주자들이 따뜻한 양말, 티셔츠, 두꺼운 스웨터, 개인용품들을 필요로 하자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SMCH는 우리 기대보다 앞서서 단체로서 진정으로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노숙자 갱생 보호소는 포틀랜드에서 제일 큰 노숙자 쉼터로 독신 노숙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노숙자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지역사회 도움에 많이 의존합니다. SMCH는 우리가 포틀랜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끊임없이 돕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별 보호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SMCH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협회의 자원봉사 팀에 대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 4월 9일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 '노숙자 갱생 보호소' 담당자

조디 듀보스 올림



영국

스승님의 우주적인 사랑이 밴드에이드(Band Aid) 자선단체까지 미쳤다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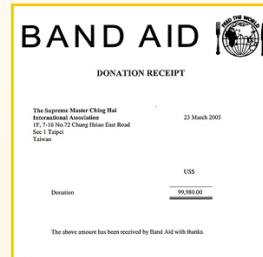
밴드에이드(Band Aid)는 1984년 에티오피아의 대기근을 도우려고 결성된 '슈퍼그룹'이다. 한 아일랜드 그룹 봄타운 랫(Boomtown Rats)의 가수인 밥 겔도프(Bod Geldof)와 스코틀랜드 락 음악가 밋지 유레(Midge Ure)가 약 40명의 영국과 아일랜드 유명 가수들과 함께 결성하여 1984년 11월에 싱글 음반 'Do They Know It's Christmas?'를 냈다. 이어 밴드에이드 자선단체가 이듬해인 1985년 4월에 결성돼 음반 판매 수익금으로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주변 지역의 기아와 가난을 도왔다.

1985년부터 밴드에이드 자선단체는 패션에이드, 스포츠에이드, 스쿨에이드와 밴드에이드 2와 같은 자선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기금의 절반 정도가 해마다 기아로 수백 만이 어려움을 겪는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긴급 지원에 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1980년 중반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었던 에티오피아, 수단, 우간다, 차드,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발전과 재건을 위해 300개가 넘는 장기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밴드에이드는 많은 아프리카인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이다.

“질병과 재난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만든 것입니다.”라는 스승님 말씀처럼 80년대 아프리카의 기근은 그동안 있었던 탐욕과 이기심,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서구세계의 착취와 인간성 남용의 쓰디쓴 결과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결과는 국제사회에 문제의 원인을 일깨워 주었다. 이 시기에 밴드에이드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도구로서 탄생했다.

2005년 3월, 밴드에이드 자선단체 활동에 대해 알게 되신 스승님은 언제나 그리하듯 자연스럽게 10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스승님의 다른 많은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애고 없이 도우시는 모습은 언제나 ‘줌 없이 주는’ 무조건적이고 편견 없는 스승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



밴드에이드 자선단체에서 보내온 영수증.

밴드에이드 자선 단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charitycommission.gov.uk/registeredcharities/showcharity.asp?remchar=&chyno=292199>

인도네시아

재난은 유한하나 신의 자비는 무한하다

메단 & 자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최근 몇 차례의 자연 재해를 잇달아 겪은 인도네시아에 세계의 관심과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진이 2004년 11월 나비레(Nabire)에서 발생한 데 이어 2004년 12월 26일에는 아체(Aceh)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으며 2005년 3월 28일 한밤중엔 리히터 규모 8.7의 강진이 니아스(Nias) 섬을 강타했다.

수마트라 서부해안 쪽에 있는 작은 섬인 니아스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최적의 서핑 장소로 유명하다. 하지만 너무 외진 탓에 북 수마트라의 시볼가(Sibolga)항에서 니아스의 주도(州都)인 거녕 시토리(Gunung Sitoli)까지는 배로 8~10시간 정도가 걸린다.

3월 28일 지진으로 거녕 시토리는 많은 삼층집들이 무너지고 주민들 대부분이 사망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아직 건물더미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사망자 수는 약 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지진 발생 후 몇 주 동안 교통, 통신,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매체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된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국제 적십자사와 연락해 니아스 섬에서 펼칠 구호 활동을 계획하고 유아용 과자, 분유, 물, 쌀, 라면, 요리기구,



마스크, 장갑, 의약품과 다른 물품들을 구입했다. 적십자사와 협력해서 가장 필요한 마스크와 장갑, 의약품은 니아스 섬까지 헬기로 옮기고 다른 물품들은 트럭으로 피해지역까지 옮겼다.

외국과 현지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왔는데 일부는 희생자들의 후송을 도왔고 나머지는 구호품을 분배했다. 우리는 니아스 섬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던 한 기독교 단체와 함께 일하며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스승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우리는 지진 피해를 입은 니아스 섬을 제때에 도울 수 있었다. 재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평화와 조화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번영하기를 신께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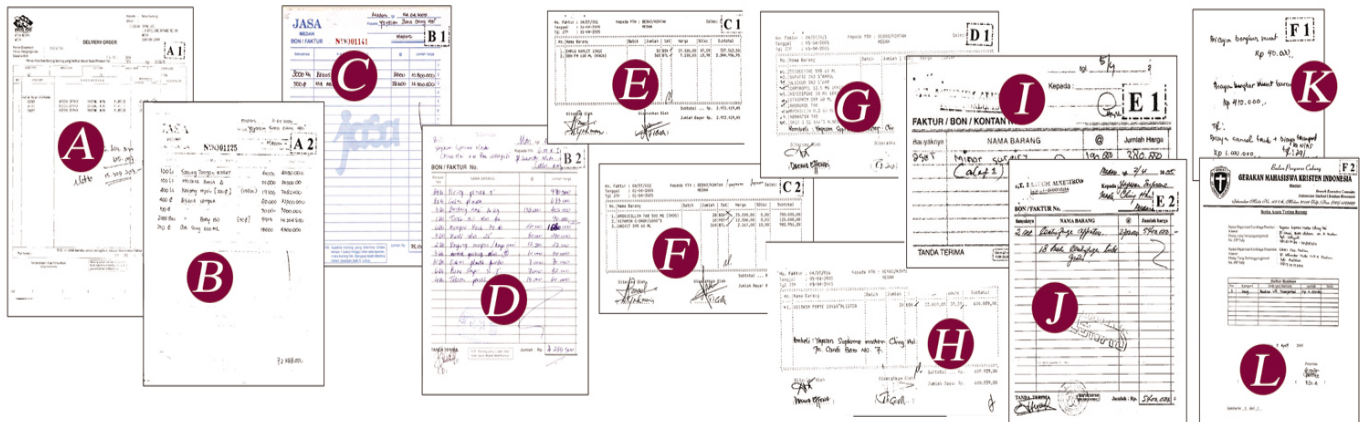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 지진 피해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출 내역	금액	부록
식품: 우유, 두유, 녹두,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과자, 물, 쌀, 라면	105,954,500.00	A~C
요리기구: 접시, 쟁반, 국자, 철채 프라이팬, 물탱크, 요리용 가스버너, 요리용 숟가락, 플라스틱 컵, 큰 비닐 봉투, 조리용 칼	4,285,500.00	D
의약품과 의료 기구	24,336,000.00	E~J
운송비와 인건비	11,950,000.00	K, L
총액	146,526,000.00루피아 (미화 약 15,756.00달러)	



전세계 연락처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난: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35564987/ saintearthmail@yahoo.co.uk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mchmauritus@intnet.mu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truelove@mypersonalemail.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regresando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sympatico.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millaraynoeml@yahoo.com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diachadicha@hotmail.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godsdirectlove@yaho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0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리마/ Mr. Edgar Nadal/ 51-1-4667737

리마/ Ms. Teresa de Nadal/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ú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산살바도르: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libocus/ 1-868-637-1054/ allibocus@tstt.net.tt

★ 미국:

* 에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에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internet.com

*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Margorifico@yahoo.com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l@ureach.com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597@yahoo.com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l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g Poelini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 캔터키: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캔터키: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l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791-7316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브라스카: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 뉴저지: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JNawarskas@salud.unm.edu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하이오: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하이오: Mr. Gilbert Rivera/ 1-9513-226-3686/ wisdmeye@aol.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l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j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shloh@ndmctsgsh.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캄페타/ Mr. Ashok Sinha/ 91-323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 62-21-6510715/ herlina@ueil.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ماس.com.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l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harry_l@sby.dnet.net.id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fre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b.biglobe.ne.jp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jg@yahoo.co.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1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유태인/ 02-795-3927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03-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선희/ 053-767-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eon@yahoo.co.kr
대전/ 김수동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신현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579-5351/ llightundinche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김삼태/ 054-821-3043
청옥/ 센터/ 054-673-7353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팔라렘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팔라렘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laring.my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aikss@mptmail.net.mm
★ नेपाल: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포카라/ Mr. Shiva Bastola/ 977-61-28255
포카라/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yahoo.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66-2-5914571/ edasnlad@stou.ac.th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iwanil@hotmail.com
콘겐/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
비엔나/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센터/ 32-472-670272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qybelgium@yahoo.com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guinzbourg@t-onlin.de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00-31-626478716/ Quan-Am@chello.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부다페스트/ Mr. Lux Tamas/ 36-3042-73364
부다페스트/ Ms. Dora Seres/ 36-30-305-7767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l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l/ 47-22-612-939/ osloqy@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마드리드/ Ms. Lidia Kong/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weden1@tele2.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i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 영국: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i@matters19.freesevic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트크오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ive.mail@trscall.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애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lsshop/ 617-3847-1646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바이런베이, 노던리버스/ Ms.Kaye Benen/ 61-2-6672 7203/ Kayebenen@dodo.com.au
캔버라/ Mr. Hoang Khanh /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m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센터/ 61-8-9242-1189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torquanyinsydney@yahoo.com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켓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QuanYin.www@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새로 나온 책

[영문판, 중문판 동시 발행]

『쉽게 수행하는 비결』

삶의 모든 활동에는 성공 비결이 있기 마련이며 수행도 예외가 아니다. 일단 이 열쇠를 얻으면 우리는 더 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쉽게 수행하는 비결』에는 칭하이 무상사가 몇 해 동안에 걸쳐 알려 주신 좀 더 쉬운 수행 방법들이 많이 담겨 있다. 또한 구도자들이 두루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폭넓은 대답도 해준다. 스승님이 직접 체험해서 얻은 이러한 도움말들은 수행을 이끌어 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수행자들이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마야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 장애를 넘어 피안에 이를 것이다.



스승님의 시집

[새로운 판형으로 재판, 영·중 대역 편집]

『침묵의 눈물』



무상예술

스승님의 최신 복제화

음양의 전투



[1995년 포모사 시후, 유화, 88 x 63cm]

이 작품에서 인간 밑바탕에 담겨 있는 양과 음이라는 모순되는 역할을 맡은 두 남자는 환상의 세계에 갇힌 채 긍정과 부정, 진짜와 가짜라는 운명적인 결투를 벌이고 있다. 싸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들은 주변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로 상징된 속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점을 극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림에서 그들은 “너희들은 내가 지배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불에 구워지며 그 고통을 즐겨라!”라며 비웃고 있는 차갑고 냉담한 여자(마왕의 도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주: 그림 속의 배경에 있는 불은 낮고 희미하게 그려져 있으며 매우 천천히 타오르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진짜 같은 환상의 세계에 속지 말고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을 해서 세속의 환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준다.



스승님의 최근 사진

